

원 저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정현지, 주입산, 유재연, 신동은, 한창호
꽃마을 한방병원 한방내과, 중풍성인병센터

Comparison study on Constitution Classification between QSCC II and Clinical Research

Hyun-Ji Jung, Li-Shan Chou, Jae-Yeon Yoo, Dong-En Shin, Chang-Ho Han

Departmen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Joong Poong & Geriatric Disease Center Conmaul Oriental hospital

Objectives :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things in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is to diagnose and classify constitution. So there have been a lot of methods and tools to diagnose and classify it. We have attempted to show the reliability and clinical application of the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comparing with our own clinical research.

Methods : We surveyed information from QSCC II and compared QSCC II's reliability with clinical research of 54 patients' constitution(men 24, women 30).

Results : Taeum-in is the most commonly reported constitution by clinical research, and the next is Soeum-in. Soyang-in is the most commonly reported constitution by QSCC II and the next is Taeum-in. In Taeum-in and Soeum-in's items of QSCC II, these matched those of the clinical research. Soyang-in's items of QSCC II did not match.

Conclusions : The efficiency of QSCC II is higher than clinical research in Taeum-in, Soeum-in. But lower than clinical research, Soyang-in and Taeyang-in have no reliability in QSCC II. So Soyang-in and Taeyang-in require alternative complementary studies in the future. (*J Korean Oriental Med 2000;21(4):73-83*)

Key Words: Constitution, QSCC II, Taeum in, Taeyang in, Soeum in, Soyang in

서 론

일반국민들의 요청에 의해 최근 사상체질의학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언론과 방송매체에서 사상체질의학의 특징과 적용방법을 다루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한·양방을 막론하고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체질(Constitution)이다.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용어로 체질(Constitution)이 인식되면서 질

· 접수 : 2000년 10월 14일 · 채택 : 12월 8일
· 교신저자 : 정현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5 꽃마을 한방병원 한방내과
(Tel. 02-3475-7034, Fax. 02-536-6995, E-mail : kali1972@hanmail.net)

병의 치료에서만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의 이해와 건강유지, 생활태도 같은 예방의학적인 면까지 사상체질의학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¹⁾.

그러나 사상체질의학은 그 이론의 명확성과 약물치료나 체질진단의 결과의 단순성 때문에 1894년 동의수세보원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관심을 동시에 받게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통견해는 체질감별(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에 있다²⁾.

정확한 체질감별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동감하면서도 지금까지 체질의학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동일하지 않은 체질감별결과로 인해 한의사 사이에서도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왔고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객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인체의 외형특성에 입각한 체질감별의 시도나 맥진, 침구³⁾, 藥診⁴⁾ 또는 여러 가지의 이화학적인 방식을 통한 연구 등이 있었다⁵⁻⁸⁾.

이러한 객관적 방법과 도구들 중 심리분석을 통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객관적 체질감별법을 개발하려는 작업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1987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고⁹⁾의 논문을 필두로 하여 꾸준히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8,10,11)}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또는 16PF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등의 기존의 심리성격검사를 이용하여 타당화 연구와 보완작업 등을 통해 金¹²⁾과 高¹³⁾의 연구등이 나온 상태이다.

그래서 여러차례 타당성과 유의성에 대한 연구로 현재 체질감별설문지로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상체질분류검사지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1996년 경희의료원 사상의학과에서 김선호 박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거쳐 진단정확률 70.08%로 인정받은 사상체질분류검사지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와 본원 사상체질의학과와 전문의의 체질진단의 연관성을 통계처리함으로써 그 임상적 유의성과 활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원에 중풍 성인병센터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받은 환자 54명(남자 24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사상체질분류검사지를 직접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환자로 선정하였다.

2. 체질감별방법

1) 사상체질분류검사지를 대상자에게 작성하게 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결과를 그 대상자의 체질로 하였다.

2) 전문가에 의한 체질감별은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인 변증론과 동의수세보원 전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임상경험을 동반하여 사상체질분류검사지의 결과는 모른채 진행하였다. 체질감별 후 사상체질 방제를 투여하여 동일한 체질의 방제를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연속투여하여 주소증의 증가나 여타의 부작용으로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그 체질로 판단하였다.

3. 통계처리

설문지로 체질감별한 것과 전문가가 체질감별한 것과의 연관성 존재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Table 14).

결 과

1. 성별과 연령 분포

남자 24명중 40~49세가 10명, 30~39세가 6명, 그리고 50~59세 60~69세는 모두 3명씩으로 나타났고 70~79세는 2명으로 나이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였다

여자의 경우도 30명중 30~39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9세와 40~49세는 6명, 60~69세는 5명, 70~79세는 3명이고 50~59세가 2명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2. 혈액형 분포

A 형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O형으로 15명이었고 B형은 12명, AB 형은 7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결혼상태의 분포

기혼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혼이 12명, 사별이 5명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4. 학력수준의 분포

대졸이 2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 11명, 국졸이 8명으로 다음순 이었고, 대학원이상이 5명이었다(Table 4).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Gender

Age	Male	Female	Total
20-29	0(0)	6(11.11)	6(11.11)
30-39	6(11.11)	8(14.81)	14(25.92)
40-49	10(18.52)	6(11.11)	16(29.63)
50-59	3(5.56)	2(3.70)	5(9.26)
60-69	3(5.56)	5(9.26)	8(14.82)
70-79	2(3.70)	3(5.56)	5(9.26)
Total(%)	24(44.44)	30(55.56)	54(100)

Table 2. Distribution of Blood Type

Blood Type	A Type	B Type	O Type	AB Type	Total(%)
Frequency	20(37.04)	12(22.22)	15(27.78)	7(12.96)	54(100)

Table 3. Distribution of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Separated	Bereaved	Divorced	Living Together	Total(%)
Frequency	35(64.82)	12(22.22)	0(0)	5(9.26)	2(3.70)	0(0)	54(100)

Table 4. Distribution of Education Level

	Uneducated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Over College	Total(%)
Frequency	0(0)	8(14.82)	2(3.70)	11(20.37)	28(51.85)	5(9.26)	54(100)

5. 직업의 분포

가사 및 노동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및 행정직, 사기업경영이 각각 13명,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연구 및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각각 3명, 그리고 법무관계직, 의료보건직, 공업 및 기술직이 모두 2명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전문의에 의한 체질감별과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한 체질감별의 비교 및 신뢰성

전체적으로 비교 해보면 전문의에 의해 태양인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2명이었고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해 태양인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없었다.

태음인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음인 13명, 소양인 10명 순이었다. 사상체질설문지에 의한 감별은 소양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태음인으로 20명, 소음인이 10명으로 그 다음순이었고 체질감별이 불투명한 경우가 1명 있었다(Table 6).

연령별체질분포를 보면 전문의에 의한 감별에서는 태음인의 경우 30~39세, 40~49세, 60~69세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70~79세가 4명순으로 나타났다.

소양인의 경우는 30~39세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9세가 3명, 40~49세가 2명이었다. 소음인의 경우는 40~49세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9~29세가 그다음으로 각각 2명이었다(Table 7).

연령별 분석에서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한 분석

에서는 소양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30~39세와 40~49세에서 각각 9명, 7명으로 나타나서 청장년층에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다음으로 20대와 70대가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의 경우는 40~49세, 6명, 60~69세가 5명, 30~39세가 4명, 50~59세가 각각 3명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 이것은 김¹⁾의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사상체질분류검사지의 특성상 소양문항에서 연령이 젊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수 있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밝고 적극

적이고 활달한 모습을 띄는 소양 문항에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 사료된다¹⁾.

소음인의 경우 20~29세와 40~49세가 각각 3명, 50~59세가 2명, 30~39세와 60~69세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나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Table 8).

성별로 체질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문의에 의한 감별에서는 태음인의 경우 남자가 12명 여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음인으로 남자가 6명, 여자가 6명이었고 소양인의 경우는 남자가 4명 여자가 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태양인의 경우 남자 여자 각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으로 성별분포는 전문의에 의한 감별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Table 9).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한 감별에서는 여자의 경우 태음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양인이

Table 5. Distribution of Occupation

Occupation	Frequency
Student	1(1.85)
Clerk or administrator	13(24.08)
Researcher or specialist	4(7.41)
Enterprise manager	9(16.67)
Judicial officer	2(3.70)
Medical member	2(3.70)
Engineer	2(3.70)
Religion related job	0(0)
Public security personnel	0(0)
Farming or fisheries	1(1.85)
Artist or athlete	1(1.85)
Service	3(5.56)
Housekeeper or laborer	16(29.63)
Total(%)	54(100)

Table 6. Distribution of Constitutions

	Classification of QSCCII	Classification of Clinical
Taeyang in	0(0)	2(3.70)
Taeum in	20(37.04)	29(53.70)
Soyang in	23(42.59)	10(18.52)
Soeumin	10(18.52)	13(24.08)
Obscurity	1(1.85)	0(0)
Total(%)	54(100)	54(100)

Table 7. Constitutional Distribution of Age - Clinical

	Taetang in	Taeum in	Soyang in	Soeum in	Total
20-29	0(0)	1(1.85)	3(5.56)	2(3.70)	6(11.11)
30-39	1(1.85)	7(12.96)	4(7.41)	2(3.70)	14(25.93)
40-49	0(0)	7(12.96)	2(3.70)	7(12.96)	16(29.63)
50-59	1(1.85)	3(5.56)	0(0)	1(1.85)	5(9.26)
60-69	0(0)	7(12.96)	0(0)	1(1.85)	8(14.81)
70-79	0(0)	4(7.41)	1(1.85)	0(0)	5(9.26)
Total(%)	2(3.70)	29(53.71)	10(18.52)	13(24.07)	54(100)

Table 8. Constitution Distribution of Age - QSCCII

	Taeyang in	Taeum in	Soyang in	Soeum in	Obscurity	Total
20-29	0(0)	0(0)	3(5.56)	3(5.56)	0(0)	6(11.11)
30-39	0(0)	4(7.41)	9(16.67)	1(1.85)	0(0)	14(25.93)
40-49	0(0)	6(11.11)	7(12.96)	3(5.56)	0(0)	16(29.63)
50-59	0(0)	3(5.56)	0(0)	2(3.70)	0(0)	5(9.26)
60-69	0(0)	5(9.26)	1(1.85)	1(1.85)	1(1.85)	8(14.81)
70-79	0(0)	2(3.70)	3(5.56)	0(0)	0(0)	5(9.26)
Total(%)	0(0)	20(37.03)	23(42.59)	10(18.51)	1(1.85)	54(100)

Table 9. Constitution Distribution of Gender - Clinical

	Taeyang in	Taeum in	Soyang in	Soeum in
Male	1(1.85)	12(22.22)	4 (7.41)	7(12.96)
Female	1(1.85)	17(31.48)	6(11.11)	6(11.11)
Total(%)	2(3.70)	29(53.70)	10(18.52)	13(24.07)

Table 10. Constitution Distribution of Gender - QSCCII

	Taeyang in	Taeum in	Soyang in	Soeum in	Obscurity
Male	0(0)	6(11.11)	12(22.22)	5 (9.26)	1(1.85)
Female	0(0)	14(25.93)	11(20.37)	5 (9.26)	0(0)
Total(%)	0(0)	20(37.04)	23(42.59)	10(18.52)	1(1.85)

Table 11. Distribution of Item - Taeum in

Item	Frequency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20
118. 간혹 눈주위가 뺨뺨할때가 있다.	19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18
8-②.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18
3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18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18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18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16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16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16

Table 12. Distribution of Item - Soyang in

Item	Frequency
2-② 체형이 보통이다	8
8-①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	7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7
29.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6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린다.	6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6

11명이었고 소음인이 5명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소양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인이 5명, 태음인이 6명, 판정이 불투명한 대상자 1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0).

전문의가 진단한 체질의 대상자가 사상체질분류검사에서 어떤 문항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태음인의 경우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가 가장 빈도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혹 눈주위가 뺨뺨할때가 있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소양인으로 전문의가 진단한 대상자들의 사상체질분류검사에서 문항을 살펴보면 “체형이 보통이다”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가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Table 12).

소음인으로 전문의가 진단한 대상자들의 사상체질분류검사에서 문항을 살펴보면 “단정하고 신중하다”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체형이 빈약하고 구부정하다”가 그 다음으로 10명으로 나타났다.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한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가 9명으로 나타났다(Table 13,14).

가로축은 전문의에 의한 체질감별 한 것이며 세로축은 사상체질분류검사지로 체질감별한 것이다. Table 14를 보면 전문의로는 태양인이 2명이 나왔으나 설문지로는 태양인이 0명이었고 이 중에서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양인으로 판명된 것은 1명도 없었다. 이때 전문의가 감별한 2명의 태양

인은 신뢰성이 없다.

소양인에 대한 횡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양인 체질이 23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0명이었고 그 중에서 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양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23명에 대한 9명)은 신뢰성이 39.13%로 나타났다.

종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양인 체질이 23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0명이었고 그 중에서 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양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10명에 대한 9명)은 90%

Table 13. Distribution of Item - Soeum in

Item	Frequency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11
6-② 체형이 빈약하고 구부정하다	10
29.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9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9
7-②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	9
12-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9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8

Table 14. Relation of Constitution

	Taeyang in	Soyang in	Taeum in	Soeum in	Total
Taeyang in	F* : 0	0	0	0	0
	P† : 0	0	0	0	0
	R.P‡ : 0	0	0	0	0
	C.P§ : 0	0	0	0	0
Soyang in	1	9	8	5	23
	1.85	16.67	14.81	9.26	42.59
	4.35	39.13	34.78	21.74	
	50	90	27.59	38.46	
Taeum in	0	0	19	1	20
	0	0	35.19	1.85	37.04
	0	0	95	5	
	0	0	65.52	7.69	
Soeum in	1	1	1	7	10
	1.85	1.85	1.85	12.96	18.52
	10	10	10	70	
	50	10	3.45	53.85	
Obscurity			1		1
			1.85		1.85
			1		
			4		
Total	2	10	29	13	54
	3.70	18.52	53.70	24.07	100

* ; Frequency

† ; Percent

‡ ; Row Percent 횡렬 백분율

§ ; Collum Percent 종렬 백분율

※ Chi-Square test에 의해 통계처리함

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태음인의 경우는 황렬 백분율(검사지로는 태음인 체질이 2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29명이었고 그 중에서 1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20명에 대한 19명)은 95%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았다.

종렬 백분율(검사지로는 태음인 체질이 2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29명이었고 그 중에서 1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29명에 대한 19명)은 65.52%로 나타났다.

소음인의 경우는 황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음인 체질이 1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3명이었고 그 중에서 7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10명에 대한 7명)은 70%로 나타났다.

종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음인 체질이 1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3명이었고 그 중에서 7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13명에 대한 7명)은 53.85%로 신뢰성이 나왔다.

고 찰

사상체질의학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적용하고 치료하는데 어려움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체질의 감별(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이다.

동의수세보원¹⁵⁾의 四端論에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이라하여 그 體質을 구분하고 있고 四象人 辨證論에 “太陽人 體形氣像 腦 頁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傾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

弱”라 하여 體形氣像으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 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 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 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라 하여 장점과 특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또 “太陰人 恒有怯心 少陽人 恒有懼心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라 하여 심리적인 특성에 관한 언급도 기재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전편에 걸쳐 각 체질의 특징적인 생리 병리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임상에서의 체질감별의 어려움으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리하여 박의 頭部觸診法⁹⁾, 태극침법, 권의 乳臍尺度法⁶⁾, 박의 十種鑑別法⁶⁾, 권도원의 팔체질침법과 진단맥법에 관한 羅의 연구³⁾, 허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¹⁷⁾, 등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 동의수세보원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면이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설문검사지 방법은 대상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하더라도 대략적인 수준의 분류 등의 목적으로 기존의 임상심리학과 신경정신과에서 심리분석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그 신뢰도와 유효성을 전문의가 진단한 체질과 비교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우선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1을 보면 성별 및 연령 분포의 경우 남자 24명 중 40-49세가 10명, 30-39세가 6명, 그리고 50-59세 60-69세는 모두 3명씩으로 나타났고 70-79세는 2명으로 나이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였다

여자의 경우도 30명중 30-39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9세와 40-49세는 6명, 60-69세는 5명, 70-79세는 3명이고 50-59세가 2명으로 가장 낮았다.

혈액형 분포(Table 2)는 A 형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O형으로 15명이었고 B형은 12명, AB 형은 7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관한 Table 3을 보면 기혼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혼이 12명, 사별이 5명순으

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관한 Table 4를 보면 대졸이 2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 11명, 국졸이 8명으로 다음순 이었고, 대학원 이상이 5명이었다.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향상되어 대졸의 분포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후의 대상자에서 고졸과 국졸의 분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분포에 관한 Table 5를 보면 가사 및 노동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및 행정직, 사기업 경영이 각각 13명,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연구 및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각각 4명, 3명으로 나타났고 법무관계직, 의료보건직, 공업 및 기술직이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에 의한 체질감별과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한 체질감별을 전체적으로 비교 해보면 전문의에 의해 태양인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2명이었고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해 태양인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없었다. 태음인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음인 13명, 소양인 10명 순이었다(Table 6).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한 감별은 소양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태음인으로 20명, 소음인이 10명으로 그 다음순이었고 체질감별이 불투명한 경우가 1명이었다(Table 6).

이 경우는 분석결과에서 첫 번째 분석에서 소음인으로 나왔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소양인으로 나왔는데 같은 의도로 질문한 서로 다른 문항에서 대상자가 각각 다르게 답변한 결과이다.

연령별체질분포를 위해 Table 7과 Table 8을 보면 전문의에 의한 감별에서는 태음인의 경우 30~39세, 40~49세, 60~69세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70~79세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양인의 경우는 30~39세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9세가 3명, 40~49세가 2명이었다. 소음인의 경우는 40~49세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9~29세가 그 다음으로 각각 2명이었다.

연령별 분석에서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한 분석

에서는 소양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30~39세와 40~49세에서 각각 9명, 7명으로 나타나서 청장년층에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다음으로 20대와 70대가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의 경우는 40~49세, 6명, 60~69세가 5명, 30~39세가 4명, 50~59세가 각각 3명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있음을 볼수 있다. 이것은 김⁸⁾의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사상체질분류검사지의 특성상 소양문항에서 연령이 젊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수 있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밝고 적극적인 활달한 모습을 띄는 소양 문항에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 사료된다¹⁴⁾.

소음인의 경우 20~29세와 40~49세가 각각 3명, 50~59세가 2명, 30~39세와 60~69세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나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

Table 9와 10에서의 성별로 체질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문의에 의한 감별에서는 태음인의 경우 남자가 12명 여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음인으로 남자가 6명, 여자가 6명이었고 소양인의 경우는 남자가 4명 여자가 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태양인의 경우 남자 여자 각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으로 성별분포는 전문의에 의한 감별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 의한 감별에서는 여자의 경우 태음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양인이 11명이었고 소음인이 5명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소양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인이 5명, 태음인이 6명, 판정이 불투명한 환자 1명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태음인이 여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체질이며¹¹⁶⁾ 다음으로 소양인 소음인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 태음인과 소양인이 양쪽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김¹¹⁹⁾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태음인과 소양인의 문항에서 서로 공통되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이며 각각의 가산점 부여를 통해 연령별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된다.

검사지의 각 체질별 항목별로 비교해보기 위해 전문의가 진단한 체질의 대상자가 사상체질분류검사지

에서는 어떤 문항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태음인의 경우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가 가장 빈도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혹 눈주위가 뻑뻑할때가 있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이것은 김¹⁸⁾과 송¹⁹⁾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진 문항이라 밝힌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 부위가 빈약하다” “골격이 굵고 살이 찢 편이다”와는 이견을 보이는 결과이지만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간혹 눈주위가 뻑뻑할때가 있다.”가 모두 태음인 항목에 해당되어 전문가가 체질감별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소양인으로 전문가가 진단한 대상자들의 사상체질 분류검사지에서의 문항을 살펴보면 “체형이 보통이다”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가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Table 12). 이것은 김¹⁸⁾의 연구에서 밝힌 소양인 문항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체형이 보통이다”와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는 소양인 문항이긴 하나 그 연관성이 -0.09로 떨어지는 문항이며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는 태음인 문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양인을 정확하게 판별할 확률이 60.0%로 태음인 74.5%, 소음인 70.8%보다 다소 떨어지며 소양 척도에 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송^{18,19)}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음인으로 전문가가 진단한 대상자들의 사상체질 분류검사지에서의 문항을 살펴보면 “단정하고 신중하다”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체형이 빈약하고 구부정하다”가 그 다음으로 10명으로 나타났다.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가 9명으로 나타났다(Table 13).

이것은 김¹⁸⁾의 연구에서 밝힌 소음인 문항에 다 해당이 되며 가산점을 받은 문항이기도 해서 전문가가 진단할 때 보는 체형이라든지 성격도 많이 반영되어 설문지와 서로 같은 견해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또 사상체질분류검사지가 소음인을 진단할 확률이 70.8%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개의 방법으로 각 체질별 연관성 존재에 대한 검증을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로축은 전문의에 의한 체질감별 한 것이며 세로축은 사상체질분류검사지로 체질감별한 것이다. Table 14를 보면 전문의로는 태양인이 2명이 나왔으나 설문지로는 태양인이 0명이었고 이중에서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양인으로 판명된 것은 1명도 없었다. 이때 전문의가 감별한 2명의 태양인은 유의성이 없다.

이것은 김¹⁸⁾의 논문에 의해 사상체질분류검사지의 태양인 기준(Norms)이 24개로 네 체질중 가장 적으며 그 이유는 표본집단의 사례수가 적어서 기준(Norms)의 작성에 미흡했다고 사료된다¹⁸⁾.

소양인에 대한 횡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양인 체질이 23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0명이었고 그 중에서 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양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23명에 대한 9명)는 신뢰성이 39.13%로 나타났다.

종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양인 체질이 23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0명이었고 그 중에서 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양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10명에 대한 9명)는 90%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태음인의 경우는 횡렬 백분율(검사지로는 태음인 체질이 2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29명이었고 그 중에서 1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20명에 대한 19명)는 95%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았다.

종렬 백분율(검사지로는 태음인 체질이 2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29명이었고 그 중에서 19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29명에 대한 16명)는 65.52%로 나타났다.

소음인의 경우는 횡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음인 체질이 1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3명이었고 그 중에서 7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 감별 모두에서 소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10명에 대한 7명)는 70%로 나타났다.

종렬 백분율(검사지로는 소음인 체질이 10명이었으나 전문의가 체질감별했을때는 13명이었고 그 중에서 7명은 검사지와 전문의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음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13명에 대한 7명)는 53.85%로 신뢰성이 나왔다.

위의 결과는 소양인에 대한 체질감별은 설문지보다 전문의에 의한 감별이 신뢰성 9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송¹⁸⁾의 연구에서 밝힌 사상체질분류검사가 소양인을 감별할 확률이 60%로 다소 낮다는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문의가 감별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태음인과 소음인의 체질감별은 전문의에 의한 감별보다 설문지에 의한 감별이 신뢰성이 각각 95%, 70%로 높게 나타나서 송¹⁸⁾의 연구에서 밝힌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 론

1. 성별 및 연령 분포의 경우 남자는 24명이었고 여자는 30명이었다. 남자24명중 40~49세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 30명중 30~39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2. 전문의에 의한 체질감별은 태음인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음인 13명, 소양인 10명, 태양인 2명순이었다. 사상체질분류검사에 의한 감별은 소양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태음인으로 20명, 소음인이 10명으로 그 다음순이었고 태양인은 없었으며 체질감별이 불투명한 경우가 1명 있었다.
3. 설문지 항목을 분석해보면 전문의가 태음인, 소음인으로 진단한 대상자들의 경우는 각각 그 체질에 해당하는 항목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소

양인으로 진단한 대상자의 경우는 소양인과 연관성이 없는 항목이 주로 나타나서 소양인 항목에 대한 보완작업이나 항목별 가산점부여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태음인에 대한 횡렬 백분율은 95%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았으며 종렬 백분율은 65.52%로 나타났다.
5. 소양인에 대한 횡렬 백분율은 신뢰성이 39.13%로 나타났고 종렬 백분율은 90%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6. 소음인에 대한 횡렬 백분율은 70%로 나타났고 종렬 백분율은 53.85%로 신뢰성이 나왔다.
7. 사상체질분류검사를 통한 감별은 소양인보다는 태음인과 소음인의 감별에서 높은 유의성이 있었고 설문지로 1차적으로 감별하는 것이 전문의의 체질감별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金善豪.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의 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5;7:307-321.
2. 金達來.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四象醫學會誌. 1994;6:798-803.
3. 羅基成. 四象鑑別과 體質針. 생약과 한의학. 1978;30:289-299.
4. 金文星. 四象體質鑑別法과 經驗方公開. 大韓韓醫學會報. 1966;21:40-41.
5. 朴爽彦. 四象頭部觸診法. 醫林. 1982;147:235-246.
6. 朴寅商. 四象鑑別에 대한 小考. 화요한방. 1987;1:23-34.
7. 卞柱然. 四象體質鑑別論. 서울:과학교육. 1982:208-219.
8. 염태호,김정규. 성격요인검사-실시요강과해석방법. 서울:한국심리적성연구소. 1990:29-37.
9.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 方法論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987;8:235-247.
10. 김완석, 손명자. 심리검사론. 서울:울곡출판사. 1994:43-44,47,119,181-189,210.
11. 金鍾佑.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임상적

- 고찰-MMPI와 사상체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34-56.
12. 김중원. 문진표를 중심으로 體質診斷分類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四象醫學會誌. 1996;8:337-346.
 13.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1985;9:125-137.
 14. 李延燦.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에 대한 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6;8:345-357.
 1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서원. 1979:15-24.
 16. 權英植. 四象鑑別法에 대하여. 醫林. 1973;97:131-154.
 17. 許萬會.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47-58.
 18.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의 標準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5;7:23-34.
 19. 宋一炳. 四象人의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四象醫學會誌. 1994;6:56-67.
 20.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 成立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1;3:2-8.
 21. 鄭成忠. 四象體質鑑別에 대한 客觀的 研究. 醫林. 1982;9:151-159.
 22. 韓國東洋哲學會.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11-21.
 23. 韓熙錫. 四象體質鑑別. 약업신문(1-5). 1972;7:26-34.
 24. 韓熙錫. 四象體質鑑別의 概要. 동양의학 5호. 1976; 10:34-54.